



즉시 배포용: 2020년 1월 15일

ANDREW M. CUOMO 주지사

**CUOMO 주지사, 뉴욕주 경찰 혐오 범죄 태스크 포스(STATE POLICE HATE CRIMES TASK FORCE)에 맨해튼 반유대주의 사건에 대한 수사 지원 지시**

"최근 한 사람이 맨해튼의 지하철역에 전단지로 만든 만자를 게시했다는 보고에 혐오감을 느낍니다.

저는 뉴욕주 경찰 혐오 범죄 태스크 포스(State Police Hate Crimes Task Force)에 이 비열한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범인을 법으로 엄중히 처벌할 것을 지시합니다.

반유대주의는 이 나라를 괴롭히는 재앙이며, 마땅히 몰아내야 합니다. 뉴욕은 증오가 아닌 다양성과 포용의 장소이며, 계속해서 이러한 사악한 행위를 비난하기 위해 단결할 것입니다."

###

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[www.governor.ny.gov](http://www.governor.ny.gov)  
뉴욕주 | Executive Chamber | [press.office@exec.ny.gov](mailto:press.office@exec.ny.gov) | 518.474.8418

[구독 취소](#)